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쳐시다

### 스님들의 권위주의

스님과 권위주의,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불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불자들이 많다. 스님이라는 위치가 마치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모든 불자들은 한결같이 "입금된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자신들이 경험했던 스님들의 권위주의를 털어놓았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불자들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미꾸라지'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시키고 본다. '나는 스님이니 일은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태도다. '무조건 반말형'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뒤로는 오직 부처님뿐 '스님' 위에 사람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주이다.

스님이 벼슬 아닌데... 소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잘못했거나 다가는 아예 면전에서 호통(?)을 듣는 일도 다반사다. 어떤 불자는 "불성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가 "술에없는 질문하지 말고 기도나 잘해"라는 대답과 함께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800~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카메라 외에도 오디오, 컴퓨터 등도 최고급만을 고집하는 스님들도 많다. '내 위치에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나이 많은 노보살에게 여지도 살배를 시킨다는 지, 무엇을 받을 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등은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다반사가 되었다.

물론 모든 스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잡아함경>에 "마땅히 담처럼 부드럽게 살고, 처음으로 승려인 것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며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 '하심(下心)', 권위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존경해 세워주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불자들이 "조계종 개혁" 촉구

## 재가연대, 사찰재정 공개등 5개항 건의

### 서명운동-토론회-입법청원 등 계획도

재가불자들이 조계종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32개 재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박광서 임원속 공동대표와 김홍서 조총장고문, 강영원 류종민 지도위원은 9일 총무원장 정대신을 예방하고 △사찰 재정운영의 투명화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 △신도교육과 조직, 포교사업에 각별한 관심 △불교의 자주권 확립 △교역적 총무원은 리정령 재정을 촉구하는 5개항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창립 이후 개최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이메일로 들어온 의견을 취합해 5개항의 건의서를 작성한 재가연대는 이후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통해 사찰 운영의 투명화와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 요구를 확산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된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재가연대는 사찰 재정공개와 관련, "지난 98년과 99년의 종단사태를 '스님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경박하다"고 지적하고 "사찰 재정을 둘러싼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또 "재가불자들의 대표조직과 재가 전문인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 합리적

- 조계종개혁 5개항 건의**
- 사찰재정 투명화
  - 재가자 종단운영 참여
  - 신도 교육·조직화
  - 불교자주권 확립
  - 소임자 윤리강령 제정

대해서도 정대신은 "종교에는 신도들이 종교에도 들어와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대신은 또 "94년 개혁 때 (종회에) 들어왔어야 했다"며 "자주 운동하면 이해하는 스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가연대는 사면과 관련, "승단의 계율과 종현·종법, 기율의 재정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재가연대는 또 "종단의 입법



감은사 금동사리함 공개 신라인의 물심과 예술정신, 과학기술을 빛낸 금동사리함이 지난 96년 4월 감은사 동합에서 발견, 3년 7개월 만에 복원돼 공개됐다. 외함 겉면에 양각된 사천왕상은 생동감이 넘친다. (관련기사 7면)

## 재정분과위 성원미달 조계종 예산 심의못해

조계종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명)는 8일 불기 2544(2000)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위원 13명 가운데 6명만 참석, 의사결정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조계종의 새 예산이 확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249호 3면 기사참조>  
정성운 기자

## 내년 3·1절 온겨레 손잡기 펼친다

불교등 7개종교 주축...북한 참여 협의중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상임공동본부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이 내년 3월 1일 서울 남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펼쳐진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전교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YMCA 등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레손잡기 운동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잡기 행사는 내년 3월 1일 오후3시 서울 남산의 팔각정을 중심으로 남한은 대전·대구·목포·부산·남원, 북한은 관동성과 평양·신의주 구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운동본부에는 북한의 참여를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18일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종교인교화회의 명예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심볼로 사용

본사 새해 1년동안, 재미화가 문범강씨 작품

'불국토 건설'을 새 천년의 화두로 삼은 현대불교는, 그 화두를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찾고자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팔정도'나 보살의 길을 제시한 '육바라밀'의 실천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문물적 이미지나 풍류 다름 또는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불자들은 많습나다. 사실 그런 식의 비판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합의 도리로 그러한 상황을 성찰하는 불자들은 드물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조금은 선언적으로 말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위문은 아님 것임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걸어 보셨습나다. 사실상 새 천년의 대안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마련이 된 것입니다. 현대불교의 책임은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2000년의 지면 재차 방향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삼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면에 담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범강  
\* 이 심볼로 만든 문범강씨는 지난 98년에서 1999년 한해 동안 총 100여점의 불교미술작품을 제작하여 불교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천년 인재를 찾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현대불교가 젊은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표로 내건 현대불교는 지난 50여 년 동안 불교로써 정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공동체의 구현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대불교아파트 가장 이상적인 입자가 될 것입니다.

모집부서	구분	인원	전형절차	응시자격
4차기지	신입	약간명	2차 서류전형	1. 불교신자 2. 남자 22년 1월1일 현재 30년 1월1일 이후 출생
영양직 (과외 인턴십)	신입	약간명	2차 서류전형	3. 2년 1월1일 현재 30년 1월1일 이후 출생
무용교리	신입	약간명	면접	4. 2년 1월1일 현재 30년 1월1일 이후 출생
문화사업 (1차원 비서인턴)	신입	약간명	면접	5. 2년 1월1일 현재 30년 1월1일 이후 출생

**응시요령**

1. 원서접수 (1) 기간: 1999년 12월 15~22일  
(2)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3)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인문사 관리부(우 110-170)  
인터넷 주소: <http://www.buddhapia.co.kr>
2.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성적 증명서(인터넷 접수자는 면접시 제출), 경력증명서
3. 1차 합격자 개별통보(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인문사

## 신행수기 공모 18일 마감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흡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삶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칼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 쓰고 버릴 땐 호호함을 느껴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 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 이겠습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x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 냄비뚜껑, 자동차 등 세척시 핵심 뛰어난 흡수력과 탄력적으로 잘 닦이며 삶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x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욕실제품 등 세척시 핵심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에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x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 냄비뚜껑, 자동차 등 세척시 핵심 천연소독제와 수세미의 이종구조로 흡수력,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핵심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핵심 부드럽고 탄력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됩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병, 플라스틱 병, 유리병 등 세척시 핵심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핵심 세제를 덜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소독제와 함께 사용하면 뛰어난 거품이 있어 적당한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핵심 압착의 용기만 닦아도 점점 커지고 휘는 내물, 세척 인내가 가능하며 관측물로 적당하여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잘 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6층 628-14 정호빌딩 2층 TEL: 02-3409-2235(대) FAX: 02-3409-2236  
공 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리2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 0571-858-5661(대) FAX: 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